

나오차오, 변화의 꿈을 품고 서다

- 2008 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 부문 수상자 건축기행 II

Niǎo Cháo(鳥巢), Standing with the dream of the change

- 2008 KAA Unbuilt Works Prizewinners Report on China Architecture



소관식

by Son Kwan-sik

이력

· 한국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과

· 수상경력

· 제9회 한국건축문화대상 최우수상

· 2008 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부문 우수상

본 기행문은 2008년 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 부문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건축탐방에 참가한 수상자를 대표하여 필자가 건축기행문을 개정한 것이다.

2008년 11월 27일

여행 가방을 끌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부슬부슬 내리는 겨울 비와 함께 하늘은 내내 어두웠다. 아침 7시까지 공항에 도착하기 위해 해가 뜨지 않은 새벽부터 밖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공항에 도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박 3일의 일정동안 함께하게 될 14명의 동료들과 대한건축사협회의 배선영씨, 그리고 김지한, 백민석 심사위원님을 만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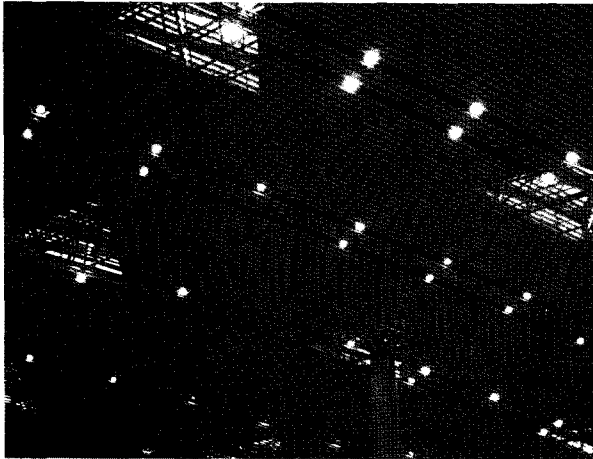
9년 전, 대학교 1학년 때 북경을 다녀온 적이 있다. 그 당시 내가 느끼고 경험하며 마음에 새긴 북경의 이야기들은 출발 며칠 전부터 나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게다가 공모전을 준비하며 같은 주제에 대해 고민을 하고 뜨겁게 설계를 한 동료들과 함께 베이징을 여행하는 일은 너무나도 낭만적인 것이었다. 올림픽을 통해 북경의 모습은 그동안 어떻게 변화되어졌을까? 처음 만남에서의 낯선 어색함과 수줍음의 마음들은 공모전과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쉽게 지워나갈 수 있었다.

약 2시간 정도의 비행을 통해 도착한 북경 서우두국제공항 신청사. 작은 비행기의 창을 통해 바라본 공항은 올림픽 개막에 맞춰 진행된 '대작'답게 거대한 스케일을 자랑해 보이는 듯 했다. 특히 거대 지붕 위의 채광창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햇빛을 오묘하게 반사해 내는 합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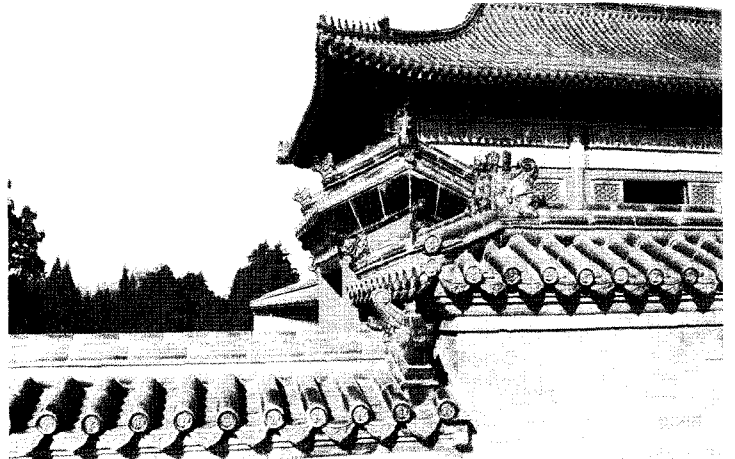
의 금속판들로 이루어져 마치 뾰족한 삼각형의 비늘을 연상케 했다. 간단한 입국 수속을 마친 후, 공항 앞에 대기 중이던 버스를 타고 북경 시내로 향하였다.

달리는 버스 안에서 바라본 북경 시내의 모습

과거 광활하고 평탄한 대지 위에 펼쳐진 사방으로 시선이 탁 트인 스카이라인이야말로 고도라는 문화적 배경을 가진 베이징의 특징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러나 무질서한(?) 상업적 개발 속에서 베이징은 전혀 다른 얼굴로 바뀐 듯 했다. 유리벽의 마천루들이 고궁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구역 일대와 시내 곳곳에 자리 잡으면서, 베이징이 전통적인 스카이라인과 경관은 어느새 사라진 듯 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증명해 보이기라도 하듯이 고층 건물 건설을 위해 들어선 대형 크레인들을 지나가는 곳곳 마다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누군가는 한편의 비극이라고 말하기 까지 했다. 나는 평소에도 그러한 비판에 동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적으로 개발되어진 도시의 중심 지구를 지나가는 동안 그 가운데 서있는 몇몇 건축물들을 바라보며 놀라움과 동경의 감탄사를 연발하곤 했다. 세계 최대의 건축실험장이 되어진 북경시에는 올림픽 개최를 통해 세계인들이 놀랄 만한 현대의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서게 된 것이 사실이었다.



서우두 국제공항의 지붕과 채광창



천단공원의 기와 - 파란색은 하늘, 녹색은 땅을 의미한다.

보행자 빨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여전했지만 횡단보도 앞에 줄지어 서 있었던 수많은 자전거의 무리는 이제 찾아볼 수 없었다.

공항에서 시내의 천단공원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자전거 대신 마주 친 것은 다양하고 수많은 차량의 행렬이었다. 요일별로 차량을 통제하지 않으면 서울보다도 심각한 교통 혼잡이 있을 수 있다는 가이드의 설명에 베이징의 빠른 변화를 다시 한 번 실감했다.

간단한 기내식으로 아침의 허기를 채울 수 있었지만 현지 가이드의 설명을 듣는 동안 누구나 할 것 없이 배고픔의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다. 그래서 일정을 변경해서 들린 곳이 바로 '태가촌'이라 불리는 식당. 요리 접시가 돌아가는 원형테이블에 둘러 앉아 음식을 떨어먹는 분위기였다. 중국음식 특유의 향 때문에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별다른 냄새가 없었기에 모든 요리를 맛있게 맛 볼 수 있었다.

두둑이 배를 채우고 난 후 우리가 처음으로 향한 곳은 중국의 황제들이 제천의식을 행했다던 천단공원이었다. 버스에서 내려 공원의 중심부로 이동하는 동안 12월의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녹색의 푸르름이 가득한 고목의 세계가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 주었다. 그 나무들의 사이를 배경으로 권법체조, 장기놀이, 흥겨운 전통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노인들, 바닥에 물로 한자를 쓰는 사람을 볼 수 있었다.

천자인 황제가 하늘에 의식을 행하였던 곳답게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라는 그들의 공통된 세계관은 어느 한 곳도 예외 없이 통일되게 적용되어져 있었다. 하늘과 땅의 의미와 그것의 관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한 천단세계의 모습들은 역사에 해박한 현지 가이드의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한 가지씩 이해되어져 갔다. 특히 가장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던 파란색 원형지붕의 기념전은 사계절을 뜻하는 4개의 용주기둥, 12달을 의미하는 중간 12개의 빨간기둥, 이 둘을 합한 24개가 24절기를 의미하듯이 건축의 조형도 제천의 정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어 설계되어졌다.

우리는 도보로 중국의 상징인 자금성에 이르기 위해 인민대회장과 과 모택동기념관, 인민영웅기념탑을 지나 넓은 천안문광장을 통과하였다. 천안문의 시작으로 뒤로~뒤로~ 끝없이 이어지는 거대한 성들의

행렬. 그 거대한 스케일감이 가져다주는 힘은 예전과 동일한 것이지만 9년의 시간동안 내안에 조금씩 쌓여진 건축과 역사, 문화, 이념에 대한 이해는 그 장소의 의미를 이전 보다 풍성하게 해주었다.

자금성의 놀라움이 채 가지지 않은 채 찾아간 유리창 거리

청대의 건축 형태로 지어진 상점들이 줄지어 있는 300여년의 전통을 지닌 중국의 인사동 거리라고 불리우는 곳이었다. 붓이나 종이, 골동품을 파는 점포가 밀집되어져 있었는데, 한 때 모든 관광객이 들리던 여행의 필수 코스라고 했지만, 상점을 오고가는 몇몇의 지역 사람들이 보일 뿐 거리는 저물어가는 해의 노을과 함께 한산함이 느껴졌다.

중국 서커스 단원들의 공연관람 후 찾아간 곳은 북경에 오면 꼭 한번 먹어봐야 한다는 북경 오리고기집이었다. 저녁식사를 기다린 이 유가 오리고기의 맛이 일품인 것도 있겠지만, 때 반 식사 시간 때마다 이어지는 김지한, 백민석 심사위원님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은 귀담아 들어야 할 좋은 말씀이었기에 건축학도들로 하여금 식사시간을 더욱 기다리게 해주었다.

오리를 잡고 찾아간 곳은 북경 최대의 변화가 왕부정 거리였다. 단지 물맛이 좋은 우물이 있던 작은 마을이 정부의 재정비 정책으로 인해 북경 최고의 변화가로 탈바꿈된 곳이었다. 세계적인 명품숍에 거대한 백화점까지... 중국 전통 양식이 가미된 현대적인 건물들이 가로양



북경의 인사동이라 불리는 유리창거리



1. 오리요리의 최고봉, 북경 오리구이 2. 이화원의 곤명호와 만수산을 배경으로 단체사진 3. 만리장성

편에 즐비했다. 화려한 현대의 거리도 있었지만 이와 함께 전통 야시장 골목도 형성되어져 있었다. 다리가진 것, 책상다리를 빼고 다 먹는다는 중국인들. 우리는 그 거짓말 같은 소문을 왕부정 먹자골목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한 다음 무시무시한 전갈 꼬치를 직접 맛보았다. 도저히 못 먹겠다고 비명을 지르던 여학우들이 전갈의 참 맛을 느끼고 나서 행복함의 비명을 지르던 모습은 우리 모두를 즐겁게 해주었다.

이렇게 첫 날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착한 호텔

우리가 예상했던 호텔의 모습보다 더욱 깨끗한 시설에 넓고 편안한함이 느껴지는 곳이었다. 기쁨과 감사의 시간도 한 순간.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힘든 첫날의 출발일정 때문인지, 다들 각자의 객실에 여장을 풀고 씻자마자 소리 없이 잠이 든 것 같았다.

둘째 날 아침. 베이징에서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만리장성을 보기위해 버스에 올라탔다. 도착지에는 무서운 강풍이 불기 시작했지만, 우리는 무사히 케이블카를 타고 장성 위에 도착 할 수 있었다. 케이블 카 안에서 구불구불 기복이 심한 산세를 따라 멀리까지 뻗어있는 견고한 성을 따라 올라가고 있으니 감탄이 절로 나왔다. 바로 눈앞에 펼쳐진 책과 사진속의 장성과 비슷한 모습들... 높은 하늘과 굽이치는 만리장성을 카메라에 담고나서 사람들을 따라 계단을 올라갔다. 계단들은 사람들의 발길에 닳아 패인 곳이 많았다. 케이블카를 좌우로 흔들던 매서운 바람은 더욱 강하게 느껴져서 금경사의 계단을

올라갈 때면 뒤로 때굴때굴 굴러 넘어져 크게 다칠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했다. 저 멀리 끝없이 이어지는 장성을 바라보면서 이런 장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배포와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엄청난 국력을 상상해 보았다. 그러나 이 장성을 쌓으면서 죽어간 많은 사람들의 원망과 한은 아마도 이 장성의 길이와 비례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으로 찾아가는 곳은 명13릉. 명나라에 재위했던 16명의 황제 중 13명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찾아갔던 정릉은 그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웅장하며 자그마한 산 전체가 하나의 무덤으로 이루어져 있을 만큼 거대한 것이었다. 과거 황제의 무덤들은 후세 왕조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어 남아있는 황릉이 별로 없었기에 이를 감안하여 명조 황제들은 무덤을 마치 하나의 산처럼 위장하기 위해 큰 무덤을 만들고 그 위에는 나무와 풀들을 심었고 주변을 성곽으로 둘러싼 것이었다. 동양적 자연관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인공적인 규모와 위용을 자랑하는 명13릉의 모습은 자연 지대를 최대한 활용해 자연과 인간의 합을 추구했던 우리나라 능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전해 주었다. 수직계단을 통해서 지하 27m 정도를 내려간 다음 작은 아치 형태의 문을 지나자 엄청난 규모의 대공간이 펼쳐졌다. 황제와 2명의 황후를 위한 돌로 조각된 의자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죽은 후에도 현세에서와 같이 똑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작은 지하궁전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방은 총 3개로 나누어져 의자가 있는 석실을 중심으로 거대한 옥의 문으로 연결되어져 있었다. 지하궁전을 나오는



베이징 메인스타디움의 출입구와 야경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나오는 길 양 옆으로는 마치 철벽 요새 같은 성벽이 구룡이 완만해지는 곳까지 직선으로 길게 뻗어 있었다. 재임 기간 동안 지하궁전만을 만들고 나라를 위하여 한 일이 한 가지도 없다는 뜻에서 비문이 한자도 없이 세워진 황제 만력제의 비석은 거대한 무덤 뒤에 가려진 온전하지 못했던 황제의 허무한 영광을 보는 듯 했다. 버스 안에서 군고구마와 가이드님이 선물해 주신 감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황실 정원인 이화원에 도착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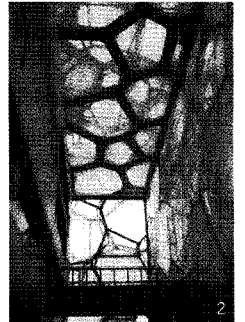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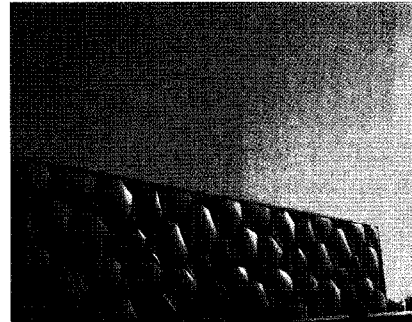
이화원의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중심을 이루는 호수는 인위적으로 파서 만든 중국 최대의 호수로 거기서 나온 흙으로 옆의 큰 산을 하나 만들었다고 하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게 했다. 우리는 호수의 둘레를 따라 길이 750m 정도의 회랑을 걷기 시작하였다. 냇가 옆면의 안과 밖에는 산수화 꽃과 새 그림, 중국의 고전소설에서 나오는 명 장면들이 그림으로 새겨져 있어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었다. 청나라의 서태후가 파티와 뱃놀이를 즐겼다는 돌배까지 이르러 기념촬영

을 한 후 바로 앞에 보이던 만수산 위에 올라가 눈 아래 펼쳐지는 풍경을 감상해 보고 싶었지만 일정상의 이유로 걸어온 길을 재빠르게 되돌아가야만 했다.

삼겹살의 저녁 식사 후 마지막 일정인 올림픽 메인스타디움으로 향했다. 메인스타디움의 조명은 우리를 강하게 빨아들이기라도 하듯이, 우리의 시선과 발걸음은 커다란 빨간 불빛만을 향해서 빠르게 움직여 나아갔다. 처음 함께 있었던 친구들은 어느새 어디론가 흩어져 눈에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이들 역시 나와 같이 건축에 푹 빠져버린 친구들이구나 생각하며 혼자 미소를 띠며 웃었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색상과 패턴으로 변하는 워터큐브의 빛 앞에선 한 편의 공연을 감상하는 듯 했다. 내일 오전 이곳을 다시 찾는다는 기대감과 함께 우리는 두 개의 아름다운 건축물이 발산하는 신비로운 빛의 향연을 뒤로하고 숙소로 향했다.

너무나도 빠르게 찾아온 여행의 마지막 밤

우리들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모두 다 작은 파티의 준비를 서둘렀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 개조되어진 작은 방에 함께 모여 밤이 깊어 가는 줄도 모르게 수다와 게임을 즐기며 이른 새벽 잠자리에 들었다.



1. 팜 위의 물방울, 워터큐브 3. 워터큐브의 내부 구조 3. 빛의 향연, 워터큐브의 야경

마지막 셋째 날 아침. 어젯밤 작은 파티의 여파로 인하여 출발 시간이 늦춰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는데, 우리 모두는 겁 없는(?) 체력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호텔 조식을 마친 후에 예정된 시간 보다 일찍 메인 스타디움으로 출발 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 는 추가 30분의 자유 관람 시간이 더해졌다. 어제 밤과는 다르게 경기가 없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또 한번의 올림픽 경기가 열리길라도 한 듯, 경기장 주변은 중국 전역과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입장권을 손에 들고 얽혀진 가지 사이를 파고 들 듯 순간의 어두움을 뚫고 들어선 메인스타디움 안. 우리들은 내부에 펼쳐진 광경을 주의 깊게 살필 잡시의 머무름도 없이 관람석 옆 통로를 따라 잔디위로 내려갔다.

경기장 중심에서의 가장 큰 느낌은 바로 이상하게도 '포근함'이었다. 관중석에 빼곡하게 놓인 빨간색 의자의 물결과 공명하듯 하늘을 통해 불어오는 차갑지 않은 겨울바람 또한 나에게 따뜻함을 전해주었다. 경기장의 외부의 모습과는 다르게 여러 방향과 모양으로 형성된 거대 골조의 구멍들은 흰색 나뭇잎의 패턴을 가진 여러 개의 판들로 덮여져 있었다. 그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속칭 '새둥지(나오차오)'라는 이 경기장의 별명이 가져다준 선인식의 경험이었을까?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곳은 마치 중국 5000년의 오랜 역사와 미래를 향한 중국인들의 꿈을 품고 있는 듯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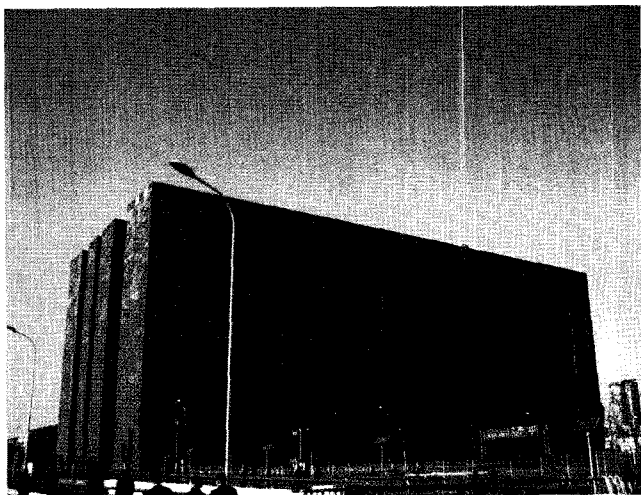
우리는 메인스타디움에서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 곳 광장 옆에 위치한 워터큐브로 급히 이동하였다. 워터큐브의 입장료는 30위안이었다. 관람시간이 입장 후 1시간 30분으로 제한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40분 정도의 시간동안 워터큐브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사진촬영을 하였다. ETFE라는 신재료를 사용하여 표현한 물방울 형태의 빛깔은 그 날 하늘의 색깔과 너무나도 흡사하여 마치 하늘의 물방울들이 커져서 땅의 있는 네모난 상자에 모여 있는 듯 했다.

공모전 마감 준비로 한창 분주했었던 지난 8월 여름에 치러진 베이징 올림픽, 그리고 그 가운데 중심이 되었던 메인스타디움과 워터큐브는 북경의 랜드마크와 새로운 자부심이 되기에 충분히 보였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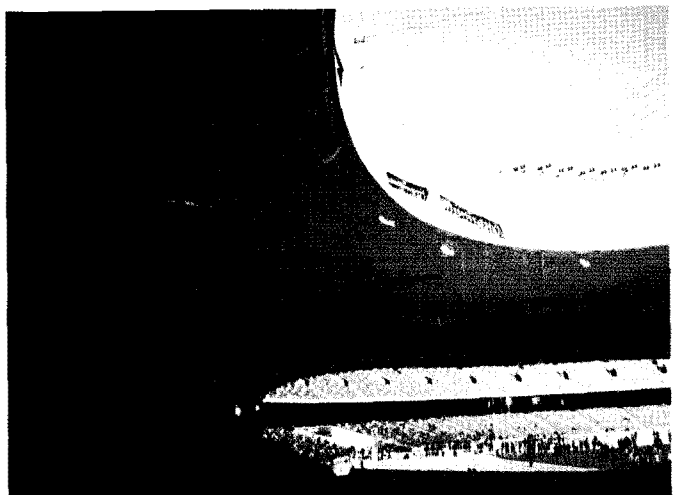
러나 나만의 기우였을까? 첨단기술, 현대 미학, 환경공학이 집결되어져 설계되어진 이 21세기 건축의 결정판들이 단지 형식만 화려하고 내용은 없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었다. 새롭고 뛰어난 건축에 대한 열광적인 반응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올림픽의 가치를 건축물이 가져다주는 감동을 통해 전달 받지는 못한 것 같았다.

손목의 시계를 들여다보니 어느새 베이징의 땅을 뒤로 남길 시간이 다가왔다. 오후 3시 늦은 점심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다시 베이징 국제공항으로 향하였다.

여행의 반은 사람과의 인연에서 시작되고, 그 반은 여정이 아닌가 싶다. 2008한국건축문화대상은 나에게 소중한 인연을 가져다주었다. 짧고도 길었던 지난 일정을 되짚어 보기 위해 카메라를 교환해 가며 사진을 열심히 살펴보았다. 카메라로 담아 낼 수 없었던 나의 생각과 그곳의 모습들...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 팬과 수첩을 꺼내들었지만, 밀려오는 피곤함에 어느새 잠이 들고 말았다. 그러나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미 또 다른 여행을 꿈꾸게 한 행복한 시간이었다. 인천 공항에 도착한 시각은 밤 10시. 2박 3일의 소중한 기간 동안 우리는 일반 관광객들의 4일 정도 되는 강행군의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일정관계상 어쩔 수 없이 찾아가보고 싶었던 건물들을 달리는 버스 안에서 멀뚱히 바라보며 지나쳤을 때에는 역시나 아쉬움이 컸었다. 그러나 한국건축문화대상의 공모전 참가는 필자에게 새로운 만남의 기회들, '건축사'로서의 진지한 도전, 그리고 대한건축사협회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켜 준 계기가 되어졌다. 이번 건축탐방을 계획하고 준비에 최선을 다해준 대한건축사협회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온갖 고은일을 도맡아 하며 뜻 깊은 여행의 밑거름이 되어준 대한건축사협회 배선영씨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여행의 좋은 안내자가 되어주었던 백민석·김지한 건축사님. 그리고 나의 새로운 친구들... 두호·광준·병수형, 순필, 전용, 소연, 새롬, 은진, 병희, 주연, 윤희, 성해, 경숙이와 함께 여행하며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며, 공유하며 가슴에 새긴 이야기들은 언제나 나의 가슴을 벅차게 할 것이다. ■



디지털베이징 4개의 매스로 통합된 회로관



메인스타디움의 내부